

## 창세기(주석)

고든 웬함(Gordon J. Wenham), 영국의 구약학자이자 작가

일곱 날과 하나님의 활동 (P) (1:1-2:3)

④ 종합

구절별 해석

1:1-5

이 구절은 해석하기 쉽지 않다.

NRSV (는 RSV 등 다수의 현대 번역본과 다르게 번역)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 창조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

    '무'에서 "천지" 곧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무로부터의(ex nihilo) 창조'

    이어서 2절 이후의 엿새 동안의 창조활동

        [창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현대의 많은 학자는

    1절을 1:2~2:3의 '표제'로 이해

    2절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이미 물질계가 존재했음을 전제하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키지 않음

    1절을 2절의 종속절로 번역하는 NRSV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1:2

"혼돈하고 공허하며"는 히브리어 두 단어를 번역한 것

(참고 RSV, "without from and void")

어원론의 관점에서 병행 문분인 렘 2:23과 적절한 번역임을 암시한다

    "생산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하나님의 행위, 즉

        식물과 동물·인간을 창조하신 행위와 대조를 이룸

    이런 전후 대조는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에서도 계속됨

    다시말해

        하나님이 "빛이 있으리"(첫째 날)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지구 전체는 어두웠고

    셋째 날에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시기 전까지는

        지구 전체가 물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바람이 물아치고 있었다"

    번역본 사이의 비교

        RSV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NRSV "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and darkness covered the face of the deep, while a wind from God swept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차이점

        1. RSV는 "Spirit of God"(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반면, NRSV는 "wind from God"(하나님으로부터의 바람)이라고 번역

        NRSV는 '루아흐(רווח)'를 "영"으로 번역하지 않고 "바람"으로 번역 (역주)

            구약성경에서 루아흐는 총 389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임(역주):

                1.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

                2. 생명의 호흡

                3.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

                4. 하나님의 영 (성령)

        2. RSV는 "moving over"(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지만, NRSV는 "swept over"(휩쓸고 있었다)라고 더 역동적으로 묘사

        "물아치고 있었다" 등은 과한 번역, 폭풍우라는 개념을 과하게 적용하려고 했던 듯

        RSV의 번역이 적절해 보임

1:3-5

    빛과 시간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활동 주간이 시작됨

    빛

        신적 존재가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됨 (출 10:23)

        [출10: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빛의 창조는

        '이전에 힘을 떨치던 어둠에 제한을 가한다' (1:2)

        빛과 어둠, 즉 낮과 밤의 반복 및 한 주간의 순환 주기를 가능하게 한다

1:6-8

    하늘은 땅 위에 펼쳐진 둑근 지붕으로 묘사되는데

    땅 위의 물이 그 위로 덮치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 둑근 지붕의 창문이 열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참고, 창 7:11)

        [창7:11] 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이넷날,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이 네라티브는

        하늘을 하나님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심지어 <에努마 엘리시>에서처럼 죽은 신의 시체와도 동일시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

        [참고] 에努마 엘리시 :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중요한 창조 서사시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이 다른 신들을 제압하고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

        바빌로니아의 세계관과 마르둑 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작품

1:9-13

    셋째 날의 분리와 창조행위에서 작은 정점에 도달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각각 두 번씩 반복

    땅의 식물을 이 날에 창조

        인간의 삶에 꼭 필요

1:14-19

    인간 삶의 일정한 규칙성을 위해서는, 천체도 절대적으로 필요

    천체 창조도 상세하게 설명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름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해와 달, 별은 신으로 간주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힘

        더구나 해와 달 대신에

        큰 광명체(큰 빛), 작은 광명체(작은 빛)라고 칭함으로

        그것들이 태양신 사마시(Shamash)나 월신 아리흐(Yarikh)를 가리킨다는 암시를 피함

1:20-23

    다섯째 날에 창조한 공기와 바다는

        여섯째 날의 '동물'과 '인간' 창조를 예견

        이 둘은 똑같이 '생물'로 묘사(20절)

        둘은 창조되었고(bara),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barek),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받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무생물을 구별함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생명이 있는 피조물에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스스로 재생산 하도록 허용함

    '복'은 창세기에 가장 자주 나온

        '창세기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하나님의 복은 장수, 평화, 풍요, 물질적·영적 성공에서 분명하게 드러남

        그것은 죽장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핵심이다 (12:1-3)

        [창12:1-3] 1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본래 하나님

        물고기, 새,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창조 세계 전체에 복을 주고자 하셨음을 암시

1:24-31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창조 이야기는 정점에 도달

    [창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선호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생물들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았다

        (아트라하시스 서시사)에서처럼 인간이 신들 계획에서 뒤늦은 궁리로 생겨난 존재가 아님

        신들의 식량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 인간

        -->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 줌 (창세기)

    [창1:2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얼까?

        1)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자신의 최고 걸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을 관찰하도록 청하셨다는 것 (가장 그럴듯한 설명)

        2) 자기 격려의 복수형이라는 견해

        3) "우리"를 삼위일체적 언급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창세기 저자의 이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고든 웬함)

    하나님의 형상

        고대 근동의 '신의 형상'으로의 "왕" - 그들이 신을 대표하여 지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렸다

        (창세기) 왕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창조 세계의 '행복을 갈망'하시는 분으로 묘사됨

        따라서 그분을 대표하는 인간 역시 명백히 그리워해야 함 (행복)

        구체적 암시는 없으나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인류로 가득 채워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돋는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함

2:1-3

    일곱째 날

    언어적 반향으로 1장 서두의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어 (2:3과 1:1)

        창조 이야기를 매끄럽게 마무리 함

    그 이상의 의미

        창세기는 하나님의 휴식일을 일곱째 날과 연결지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거룩해진 날

        성경에서 '거룩한 것'으로 불리는 맨 처음 사례

        거룩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

    일곱째 날, 창조 주간에 덧붙여진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날이 또 다른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날임을 의미함

        따라서, 이는 창조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일곱째 날 형식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